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공간 형성 및 운영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경기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를 중심으로

김경민*·홍슬희**

Ⅰ 알기 쉬운 개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은 주요 교육, 복지시설이 정부지침에 따라 문을 여닫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아동·청소년 돌봄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영역으로 전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정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존재가 규모있게 가시화되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물론 최근 정부가 공적 돌봄시스템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공적 돌봄시스템이 다양한 상황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미 확인하였다. 이에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멈춰서지 않을 수 있고, 보다 유연한 구조 속에서 공적 돌봄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을 모아 만들어내는 '커먼즈(common)'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인 관점이자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커먼즈적 돌봄공간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역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해온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형성 및 운영과정, 그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박사과정), 교신저자, presea720@hanmail.net

** (사)형견원숭이운동본부 사무국장, 제2저자, tmf125@naver.com

투 고 일 / 2023. 9. 4.
심 사 일 / 2023. 10. 13.
심사완료일 / 2023. 11. 7.

Ⅰ 초록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주요 교육, 복지시설이 정부지침에 따라 문을 여닫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돌봄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영역으로 전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적돌봄과 사적돌봄 모두로부터 배제되는 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정부는 공적 돌봄시스템의 보편성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돌봄의 개별적·정서적인 속성과 공적 돌봄 시스템의 여러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돌봄시스템에 대한 모색도 함께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G지역의 교육복지 공동체가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모아 만들어낸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형성 및 운영과정을 커먼즈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도시 지역에서 커먼즈적 돌봄공간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필요성과 발전적인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A식당의 형성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급증, 접근성이 좋은 물리적 공간 확보,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 활동 속에서 경험과 신뢰가 쌓인 리더그룹의 존재가 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식당의 커먼즈적 운영원리는 민간 재원을 토대로 한 자조적·자치적인 운영, 일상적·민주적 소통구조, 명확한 공유 가치와 규칙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커먼즈적 운영원리에 기반한 A식당은 사각지대 발굴·지원, 아동·청소년의 욕구 및 의사존중에 유리하고,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의 돌봄 역량 및 지역주민 연대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보호자들이 관찰자, 지지자로서 남아있는 한계도 확인되었다.

주제어: 아동·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커먼즈(common), 지역 공동체

I. 서 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 복지시설은 정부지침에 따라 문을 닫고 여는 상황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아동·청소년의 돌봄 공백은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돌봄이 가족, 친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영역으로 전가되면서, 공적돌봄 뿐만 아니라 사적돌봄에서도 배제되고 있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의 존재가 규모있게 가시화되었다. 실제로 당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일상 변화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평일 낮 시간대에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생은 46.8%에 달하였다(정익중, 2020 재인용).

기존 방과 후 공적 돌봄서비스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사업’ 등이 대표적인데, 2023년 현재, 윤석열 정부가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등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여러 부처의 공적돌봄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전체 아동 약 267만 명 중 33만 여 명으로 12.5%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김영란 외, 2018)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만이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향일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첫째,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공적 돌봄시스템이 다양한 상황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김경애 외, 2020). 이는 기후위기 등으로 각종 재난재해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다. 둘째, 각종 규정과 운영지침에 기반한 관료제적인 공적시스템이 돌봄의 개별적, 정서적, 상호적인 속성을 질적으로 충분히 반영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도 있다(백영경, 2017). 실제로 기존 공적 돌봄시스템은 정부의 외형적 성과 위주의 평가시스템과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돌봄의 질 저하, 아동·청소년의 욕구·주체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인력구조의 열악함, 선별과 낙인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오고 있다(이보람, 김현정, 김태중, 김부열, 박혜준, 2018; 이자형, 2011; 윤향미, 조문석, 오재록, 2013; 김민정, 2017; 신혁금, 양윤이, 2021; 최현임, 손가현, 2021; 김순양, 2022; 김청림, 노지혜, 문성호, 2022). 셋째, 공적 돌봄시스템 하에서 시민들은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비하는 단순 이용자로 머무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참여와 책임에 기반한 상호협력, 공동체적 관계가 구축되기 어려울 수 있다(홍덕화, 2018). 이에 공적 돌봄의 양적·질적 확대와 개선도 중요하지만, 재난재해와

같은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멈춰서지 않을 수 있고, 돌봄의 개별적·정서적·상호적인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또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먼즈(common)’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인 관점이자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커먼즈 연구가 숲, 강, 경작지와 같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커먼즈 연구는 커먼즈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Hess, 2000)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와 유형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도시 커먼즈 또한 그 중 하나로,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나눌 때 생겨나는 유무형의 재화로 정의될 수 있다(Huron, 2015; 이승원, 2019; Feinberg, Ghorbani & Herder, 2021; 유기현, 2021; 이현우, 정석, 2022). 도시 커먼즈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살아있는 사회 시스템으로서(Kühne, 2015) 각각이 처한 환경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할 여지가 있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운영되는 체제(Bollier & Weston, 2013)라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국내의 도시 커먼즈 연구는 아직 그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인데(홍지은, 2022; 이현우, 정석, 2022), 특히 아동·청소년 돌봄문제에 천착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박윤희와 백일순의 연구(2021)가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G지역의 청소년지원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교육복지 공동체가 기존의 공적·사적 돌봄 시스템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자원을 모아 만들어낸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를 연구사례로 선정하여, A의 형성 및 운영과정을 커먼즈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강점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커먼즈적 돌봄공간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 커먼즈라는 개념의 실재를 보여줌으로써 도시 커먼즈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적인 돌봄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맥락적 형성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운영원리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강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커먼즈의 이론적 전개와 정의

커먼즈(common)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Hardin(1968)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freedom in a commons)에서 시작되었다. ‘공유지의 비극’은 목초지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면 공유지가 망가질 것이라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유지를 사적 소유물로 만들거나, 공적 소유물로 남기되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Ostrom은 커먼즈를 감소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유자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커먼즈 사례를 분석하여, 사유재산권 설정이나 정부의 통제 외에도, 시민의 공동협력으로 공유지의 자치관리가 가능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을 반박하였다(Ostrom, 1990/2010).

Hardin과 Ostrom을 비롯한 전통적인 커먼즈에 관한 논의가 자연 자원과 자원관리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이후의 커먼즈 담론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자본주의 모순 심화, 전방위적인 상품화·사유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공공의 자원을 회복하려는 사회운동과 결합하면서, 그 의미와 유형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정남영, 2015; 정영신, 2020). 이에 아직까지 이론적 갈래를 구분하는 합의된 기준은 없는 상태이지만, Papadimitropoulos(2017)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개혁주의, 반 자본주의 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Papadimitropoulos(2017)에 의하면, 자유주의 입장은 Ostrom과 Bollier가 대표적으로, 커먼즈 영역을 국가 및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으로 본다. Bollier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운동가로서 커먼즈를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의 산실”(Bollier, 2014; 정영신, 2020, 241 재인용)로 파악한다. 두 번째 개혁주의 입장은 Bauwens와 Kostakis(2014, 2015)가 대표적으로, 커먼즈 영역의 확장을 통해 국가는 지주(property owner)가 아닌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섬기는 국가로, 시장은 윤리적 경제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은 커먼즈를 반자본주의적인 언어로 이해하고, 자본을 넘어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급진적인 입장으로 Caffentzis(2010), Federici(2012/2013a), De Angelis(2006/2019)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의 커먼즈 연구는 200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사유화에 맞서 공동자원을 확대해나가는 운동에 담론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국내 연구자마다 커먼즈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Bollier의 정의가 광범위하

게 차용되고 있다. Bollier(2014)는 커먼즈를 자원, 공동체, 사회적 규약이라는 세 가지가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Bollier(2016)에 의하면, 커먼즈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실천, 커머닝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때 커머닝(commoning)은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들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상호지원, 갈등, 협상, 소통, 실험의 행동들이다. 권범철(2020: 22, 47)은 커먼즈를 공동의 재화, 그것을 둘러싼 집합적 주체, 그리고 공동재화를 함께 생산하고 유지하는 활동, 즉 커머닝(commoing)이 어우러진 사회 체계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유지하고 창조하고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생겨난다”고 하였다. 김자경(2017: 92)은 “커먼즈는 자원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규칙들, 전통들, 가치들을 고안함으로써 자원을 관리하는 공동체로도 구성된다”고 하였다.

특히 도시 커먼즈는 ‘도시’와 ‘커먼즈’가 결합된 개념인데, 도시 내에서 공유된 유무형 재화(Feinberg et al., 2021)로 유기현(2021)은 시민들이 직접 공동으로 이용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도시 공유자원으로 정의하였고, 이승원(2019)은 도시 커먼즈는 자연 커먼즈와는 달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고 금지된 커먼즈를 복원,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현우와 정석(2022)은 지역의 공동 문제를 중심으로 커먼즈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과거에는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 이를 토대로 커먼즈가 생겼다면, 전방위적인 사유화, 상품화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원도, 공동체 기반도 무너져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원을 모아 커머닝을 한 결과,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 결과 커먼즈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박형준, 이경숙, 최정은, 김이경, 2020). 물리학자 Capra와 법학자 Mattei 또한 커먼즈란 시장 거래의 바깥에서 부분적으로 실제 필요와 기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가 인정한 어떤 것도 될 수 있다고 하였다(Capra & Mattei, 2015/2019).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Bollier(2014)의 정의에 기반하여 커먼즈를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 이 세 가지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된 전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동체가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고 유지하고 창조하고 나눌 때 생겨나는 유무형의 재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돌봄과 커먼즈

인간은 원자화된 개인들이라기보다는 관계 안에서의 존재, 즉 타인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볼 수 있다(심정보, 1996; Tronto, 2013/2014). Noddings(1992/2002: 42)는 돌봄의 의미를 ‘caring’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신희·김민성, 2021: 7). 남명자는(2006: 204)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대상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선미(2016: 246)는 돌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타인을 일반화하는 추상적 토론 속에서 도출되는 필요가 아닌 구체적인 필요의 파악이라고 하였다. 즉 돌봄은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든 행위와 그 과정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의 개별적, 정서적, 상호적인 속성, 즉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해결도 필요하다.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표준화된 국가 주도의 관료제적 복지 체제 하에서는 개별적 존중을 받기 어려우며, 시장 주도의 체제 하에서도 이윤 창출의 도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백영경, 2017: 135). 박윤희와 백일순(2021)은 돌봄을 공동의 자원화, 즉 커먼즈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커먼즈 또한 공유되는 규범이 있지만, 각각이 처한 환경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할 여지가 있으며, 중앙집중화되지 않은,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운영된다는 강점을 가진 체제이기 때문이다(Bollier & Weston, 2013). 이에 백영경(2017)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스스로 구성원들의 필요에 맞게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커먼즈를 지향할 것을 주장하였다.

돌봄의 커먼즈화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모두 주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 Federici가 대표적으로, “고립되고 사유화된 돌봄과 사회적 재생산의 실천과제”를 공유화하여 개방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주장한다(Federici, 2013b; 박윤희, 백일순, 2021: 212). Zechner(2022)는 특히 아동 돌봄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에 기반한 집단적 힘(collective power)의 중요성과 더불어 아동 또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 주체로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환의 도구로서 복지 커먼즈(welfare commons)의 개념을 소개한 백영경의 연구(2017), 돌봄 위기의 대안으로서 커먼즈를 살펴본 박윤희와 백일순의 연구(2021)가 거의 유일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례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윤희와 백일순(2021: 222, 223)은 “정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커먼즈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Caffentzis & Federici, 2014 재인용)이 진정한 커먼즈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커먼즈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Monteagudo, 2019 재인용)이 필수적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커먼즈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위한 교육과 생각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교육복지 공동체가 아동·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형성 및 운영 과정에서 커먼즈적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 돌봄 커먼즈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경험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특정 사례를 분석하는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G지역에는 일찍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 민간 기관 실무자들 간의 협력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으나, 2013년 말 연계망의 핵심에 있던 위스타트사업 종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방식이 민간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 경기교육재정 악화와 교육복지사 해고 등과 맞물리면서 연계망이 깨지고 고난의 시간이 이어진다. 이에 잦은 정책이나 예산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돌봄과 배움 공동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2015년부터 G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공공 및 민간의 청소년 유관기관·단체,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 등 25개 기관의 활동가들이 모여 G청소년지원네트워크라는 자조적인 모임을 발족하였다. 이후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2017년에 사단법인 B(이하 'B단체')를 설립하였다.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이하 'A식당')는 B단체를 중심으로 한 G지역의 교육복지 공동체가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한 돌봄 공간으로서, 기존 공적/사적 돌봄기관과는 달리 지역 공동체에 의해,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모아 만들어내고, 지역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A식당은 코로나 19 시기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공적 돌봄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일부 담당하였기에,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적인 돌봄시스템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사례이다.

이에 A식당의 형성 및 운영과정에 관한 심도있는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는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가 특정 상황에서 갖는 복잡성,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하나 또는 일련의 의사결정이 일어난 원인과 실행과정 및 결과를 조명하고, 중요한 요소 등을 파악하여 심층적인 묘사와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Smith, 1978; Stake, 1995/2000; Merriam, 1998; Yin, 2003; 김세영, 2012; 서덕희, 2020).

2. 연구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A식당의 설립을 주도한 B단체의 관계자,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관계자, 공간의 이용자인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 A식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 A식당이 소재한 C공간을 사용해온 관계자들까지 광범위하게 면담을 진행하여 G 지역의 특성, A식당의 형성 맥락 등을 그 뿌리부터 섬세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B단체의 실무자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기관 내부자의 연구 참여는 인터뷰 참여자들로부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신뢰를 토대로 보다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내고, 사례의 세밀한 운영과정과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와 필요성, 연구내용의 활용처, 연구 진행과정, 개인정보 보호,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 문의처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연번	성명	인터뷰 일정	인터뷰 방식	비고
1	가**	2022.11.03	대면면담	B단체 이사장
2	나**	2022.11~2023.2월 수시	대면면담	B단체 사무국장, A식당 활동가
3	다**	2022.11.23	대면면담	D지역아동센터 센터장
4	라**	2022.11.24	대면면담	G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조정자
5	마**	2022.12.03	대면면담	D지역아동센터 전 학부모대표
6	바**	2022.12.16	화상회의	청년단체 T 핵심 운영진
7	사**	2022.12.17	화상회의	D지역아동센터 출신 청년, 청년단체 T 핵심 운영진
8	아**	2022.12.21	대면면담	A식당 운영책임자
9	보호자1	2023.01.16	전화면담	A식당 이용자의 보호자
10	보호자2	2023.01.16	전화면담	A식당 이용자의 보호자
11	아동1 예비중학생	2023.02.13	전화면담	A식당 이용자(2020~현재), 학생 운영위원
12	아동2 예비중학생	2023.02.13	전화면담	A식당 이용자(2020~현재), 학생 운영위원

3.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사례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되었다. 첫째, 인터뷰로 사업 전개과정, 관계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심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A식당이 소재한 공간의 전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 A식당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기관 내부자인 공동연구자와 인터뷰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진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공동연구자의 참여가 오히려 인터뷰에 방해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연구책임자가 혼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로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가 인터뷰 참여자별로 사전에 주요 질문내용 함께 정리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한 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 확장적인 질문들을 하였다. 주요 질문은 A식당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담당할 역할, A식당이 만들어진 배경과 운영과정, A식당의 운영방식과 내용, A식당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유 등이며 면담 참여자의 명단은 기본적으로 가명을 사용한다. 매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는 엑셀로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연구자 2인이 각자 녹취록을 여러번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등을 메모하고, 의미 단위로 코딩을 하였다. 각자 코딩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인쇄본으로 출력하여 함께 코딩을 하나씩 검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코딩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코드들을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명을 붙였다. 이 때 드러나는 패턴들을 바탕으로 주제를 구성하고, 주제가 연구현상을 잘 설명하는지, 원 자료를 잘 나타내는지, 주제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검토하였다(부록1 참고).

둘째, 문헌분석을 통하여 인터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전개과정의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문헌자료는 B단체의 협조로 구하였으며, 회의록, 보고서 발간자료, 영상 자료, 단체 SNS 게시물 등을 활용하였다.

셋째, 참여관찰을 하여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모습과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2023년 1월 10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봉사자로서 함께 참여하여 진행과정과 내용을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공동연구자는 매주 화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7시까지 활동가로서 A식당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4. 연구의 엄격성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찰과 통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되므로, B단체의 내부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만큼,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사전 경험, 편견 등이 자료 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호 비판적으로 검토, 성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분석내용과 결과가 연구 사례의 실재를 생생하고,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면담, 참여관찰, 문헌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내용 확인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각 1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자의 지나친 편견이나 주관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맥락적 형성배경

1) 코로나 19시기,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급증

A식당은 G지역의 구도심인 g1동에 위치해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역 G역 인근에는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보호자들은 주로 공장근무, 일용직, 공공근로,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은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도 많다.

“지금 우리 g동 지역이 G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한 두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다**, D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지역 특성상 물류센터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외노자(외국인노동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조부모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부모들도 많이 계세요.” (마**, D지역아동센터 전 학부모대표)

이에 A식당 이용 아동·청소년의 주 거주 지역인 g1동, g2동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4곳이 위치해 있다. 여러 공적 돌봄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학령기 인구 수 7,548명¹⁾에 비해서는 돌봄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적 돌봄기관의 경우 이용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G청소년지원네트워크 내에서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사무국인 B단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거점기관이나 공간이 전혀 없는 g2동과 s1동 공원에 푸드트럭과 천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나눠주며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역 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 연계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하였다.

1) 출처: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경기 G지역 연령별 인구현황(2023. 2)

그런데 2020년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푸드트럭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다. 맞벌이, 한부모,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특성 상,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 있더라도 방임되던 아동·청소년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푸드트럭 이용 아동·청소년 수가 누적 10,191명²⁾에 달했다. 푸드트럭 이용자는, 공적 돌봄기관 이용을 위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초등학생 위주로 지원하는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들, 경제적인 문제로 학원과 같은 사적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없지만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학생들, 집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 없는 학생들, 친구 따라 놀러온 학생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했다.

이용자들의 푸드트럭 방문배경은 다양했지만, 이들이 푸드트럭을 계속 찾게 만드는 공통적인 세가지 필요가 있었다. 바로 ‘밥’, ‘시간을 보낼 곳’,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었다. 그런데 푸드트럭은 야외에서 진행되다보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에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실내 공간에 대한 바람이 생겼다. 또한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교육지원청 등의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구성원들도 각 기관이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문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밥을 챙겨주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코로나 19 시기 공적·사적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존재와 이들의 욕구가 규모있게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 인식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와 여론이 형성된 것이 A식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추동력이 되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장마철에 비 오고, 겨울에는 눈 오고, (푸드트럭이) 이런 때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아**, A식당 운영책임자)

“학원에 안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서 또 잘 보호받는 게 아니라 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 친구들 (중략) 그럴 때마다 다시 강조됐던 거는 돌봄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선 어디에서 좀 안전하게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라**, G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조정자)

2) 접근성이 좋은 물리적 공간 확보

실내공간 마련을 위한 재정과 장소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던 중, B단체의 운영위원회에서 C공간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C공간은 G 구도심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갈 곳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에 G청소년지원네트워크 주도로 지역 활동

2) 출처: B단체 홈페이지

가, 지역주민, 학부모,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재원과 노동력을 모아 공동의 힘으로 만들어낸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복지 기관들도 공간을 함께 사용하였다. 하지만 공간에 상주하면서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청소년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돌봄이 부재한 공간이 되었고,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1여 년 후, 닫혀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후 2017년에 지역아동센터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청년들의 활동 거점공간으로 재정비 되었고, 2020년에는 청년 기업가들이 합류하여 청년소셜카페 T가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부진, 운영진 내부갈등 등으로 인하여 폐업을 앞두게 되었다.

C공간은 지역에서 힘들게 자원을 모아 만들었던 공간이고, 지역에 공유되어온 여러 해의 역사 속에서 건물주를 포함한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을 포기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하여 아동·청소년 전용식당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역 소재 기업, 지역재단, 농협, 지역 활동가와 주민 등의 후원금과 재능봉사를 모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2021년 10월 개소하였다. 3층짜리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고 조명이 화사하여 눈에 잘 띄는 이 곳은 공간의 크기는 주방을 포함하여 약 20평으로 다소 좁지만, 다세대 주택가와 어린이공원 사이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와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보니 아동·청소년들의 도보 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저희가 식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던 공간이 이미 있어서였을 수 있어요. 청소년 전용공간이었다가, 청년들이 소셜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 해서 카페운영도 했던 공간이에요. (중략) 학교가 가깝다보니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들러서 인사하고 가기도 하고, 계속 들락날락해요.” (나**, A식당 활동가)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고민하던 중에 이미 공간이 되어있는 T 청년 공간을 밥먹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 A식당 운영책임자)



그림 1.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위치 및 전경

지역에서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합한 공간을 찾는 것은 난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이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음식조리를 한다는 것이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한 장소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여야 했다. 그런데 이미 수년간 지역에서 낮은 임대료로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온 역사가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A식당이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 것으로 보인다.

3) 경험과 신뢰가 쌓인 리더그룹의 존재

지역의 필요와 공간 자원을 엮어 아동청소년 전용식당으로 현실화해 낸 것은 바로 G청소년지원네트워크 활동 속에서 협력경험이 축적된 리더그룹, B단체의 구성원들이었다. B단체는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설립되어 지역 청소년 교육복지 의제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자원연계, 협의회 운영, 지역 내 인적 자원 발굴 및 공동학습을 통한 역량강화 등을 주관하고 있다.

“저희 G지역은 네트워크가 되게 잘 되어 있다보니 서로서로 협력할 걸 협력하고,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다 연대를 이루어서 아이를 돕는 방법도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B단체가 있는거죠.” (다**, D지역아동센터 센터장)

B단체를 중심으로 한 리더그룹은 B단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면서, C공간에 처음으로 청소년 전용공간이 만들어졌던 2015년부터 A

식당이 만들어진 현재까지 운영책임자, 운영자, 실무자, 이사, 후원자, 봉사자, 이용 당사자 등의 다양한 역할로 참여해왔고, 공유공간 설립의 성취와 운영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과거 청소년 전용공간과 청년 거점공간이 실패한 원인을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 이용자들 간의 소통문제에서 찾았고, A식당 설립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간운영의 지속성이었다. 이를 위하여 재정과 인력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수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주일에 두 번만 공간을 열기로 하였는데, 이는 무리하게 운영을 하다 문을 닫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청소년 전용공간 설립 당시) 그때는 아는 게 지역아동센터 밖에 없어서 청소년공간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일제로, 담당자가 불박이로 항상 있어야 한다고. 그게 부담이었던거예요. ‘항상 이 시간, 이 장소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냉정하게 판단했고, 일주일에 두 번 오픈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가**, B단체 이사장)

또한 공간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어떤 소통의 문화를 만들 것인지에 관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고, 만나면 즐거운 소통문화를 만드는 것이 참여자들의 생각과 행동, 상호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A식당 운영에 필요한 역할들을 논의하여 개소 전에 미리 활동가와 봉사자를 확보하고, 푸드트럭을 이용하던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식당 이름을 공모하는 등 리더그룹의 철저한 준비는 A식당이 2021년 10월에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부록2 참고)

“청지넷(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이 정리한 중요한 가치가 공감, 소통의 네트워크, 즐거운 협업문화 네트워크, 유기적 지역공동체였는데, 너무 우리를 잘 표현했다 싶었어요. 저희는 만나면 웃을 일도 많고, 그래서 더 편하게 많이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라**, G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조정자)

“그 다음에는 식당 운영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그 역할들을 할 사람들을 모두 확보했어요. 식당 열기 3개월 전부터는 아이들한테 식당 이름도 공모하고, 식당까지 오는 연습도 하고” (아**, A식당 운영 책임자)

이처럼 지역의 필요, 욕구를 아젠다화하고, 공동체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긍정적인 성취의 경험, 그리고 실패를 통한 학습 경험을 6년에 걸친 시간동안 함께 겪어오고, 그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인 리더그룹이 존재했기에 푸드트럭 운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설립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리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공간이 필요하단 여론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 그거 필요하지”에서 멈췄으면 아마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공간을 만든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잖아요. 직접 움직이고 주도하고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네트워크에서 나왔던 이슈에 직접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A식당 활동가)

2.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커먼즈적 운영원리

1) 민간재원을 토대로 한 자조적·자치적인 운영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 시장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하지만 A식당의 경우, 공공과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의 교육복지공동체가 G지역의 아이들을 공동체의 힘으로 돌보기 위하여 자원을 모아 돌봄서비스를 만들어냈고, 자조적, 자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커먼즈적 원리가 드러난다. 기존 공공, 시장 서비스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돌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A식당의 특별한 성격은 공간 외벽에 걸린 현수막의 “이 도시락은 청소년 여러분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지역의 이모, 삼촌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것입니다.”라는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을 돌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인만큼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하여 김장 등 일회성 행사후원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적지원을 받게 될 경우, 자치적인 운영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틀에 맞춰 운영해야 하기에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을 다시 배제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저희는 공적지원은 가능한 받지 않아요. 김치처럼 일회성 행사는 그걸로 끝이니까 상관없는데, 그 외에 공적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려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A식당 활동가)

하지만 리더그룹은 이전에 청소년 전용공간과 청년 거점공간을 운영할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공간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A식당을 개소하기 전부

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중요한 운영주체로 지역 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A식당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이 전체 운영비의 약 40%를, B단체의 회비와 민간 공모사업비가 약 42%를 담당³⁾하고 있다. 그 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식자재, 간식 등에 힘을 보태주고 있었다. 십시일반 모인 민간 자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경기가 어려워지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이용 아동·청소년 수의 빠른 증가에 따른 부담감도 함께 존재한다. 그 불안감과 부담감은 A식당의 활동내용을 SNS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인근 가게, 경찰서 등 지역사회와의 관계, 신뢰를 두텁게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신뢰가 쌓인 관계들이 새로운 이용자나 후원자 발굴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이용하는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불안감이 있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리고 (중략) 아이들이 직접 만든 간식은 인근 파출소에 나누기도 해요. 저번에는 아이들이 조용히 놀겠다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 쓰고 간식을 포장해서 근처 가게나 주민들께 전달 드리기도 했어요.” (나**, A식당 활동가)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후원금을 주시기도 하고, 도넛가게에서는 간식 후원해주시고, 지역 배송기사님들 모임에서는 도시락 배송 봉사를 해주시고, (중략) 우리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또 다른 후원자를 발굴, 연결시켜주는 전도사 역할을 하시거든요.” (아**, A식당 운영 책임자)

“친구 엄마 통해서 식당을 알게 됐는데, 미용실 사장님도 저한테 이곳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호자 1, A식당 이용 아동 보호자)

2) 일상적·민주적인 소통구조

A식당의 기본적인 운영은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사무국인 B단체가 책임지고 있지만, 지역 어른들이 마을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가, 봉사자(놀이봉사, 조리/포장봉사, 배달봉사), 아동·청소년들 또한 중요한 운영 주체이며 모든 의사결정은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에 기반하여 참여적, 수평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각자의 고유역할에 대해서는 전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조리팀장은 메뉴와 식재료 구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놀이팀 활동가들은 놀이 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즉 모든 의사결정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커먼즈적 원리가 드러난다.

3) 출처: A식당 운영예산, 해피빈 게시물(<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90478>)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주인의식과 주도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식당 운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담을 통해 선발하며 현재는 식당 운영단의 사전 훈련과정으로서 ‘식당 운영단 인턴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식당 운영단은 A식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공간의 공유규칙을 함께 만들었으며, 현재는 처음 오는 친구들에게 식당 이용방법 안내, 미션 수행 돕기, 간식 판매, 공간 정리 및 청소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아동들 또한 활동가들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구글설문으로 친구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넓혀나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B단체 사무국 회의는 주 1회 진행되며, 활동가, 봉사자, 아동·청소년들과의 소통에서 발견된 제안점들을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A식당의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진행되며, 전반적인 식당 운영방향, 대형 행사 결정 등 큰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각 의사결정 단위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식당 활동가 중 일부가 B단체 사무국 직원이기도 하고, 사무국 직원, 봉사자 중 일부가 A식당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는 등 관계자별로 여러 장면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체 간에 정확하게 정보가 공유되어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아이들 운영단이 있고, 그런데 그 외 아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몰려와서 정말 정신 없을 때 도장을 찍어주거나 간식을 꺼내주고, 미션을 봐주고, 공원에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오고, 식당 문 닫는 시간이면 밀대걸레를 들고와서 바닥 걸레질을 하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모습에 저희는 고마운 마음이 항상 가득하죠. 지난번에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욕구조사를 진행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나**, A식당 활동가)

“큰 움직이는 측은 조리팀, 돌봄 놀이팀, 도시락 배달팀 이렇게 되고, 이것을 서포트 해주면서 관리 관장을 해줄 수 있는 행정사무 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해 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해주는 팀이 있는거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거죠” (아**, A식당 운영 책임자)

또한 참여자들 간의 민주적인 소통에는 참여적, 수평적, 다방향적인 의사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서로 비난하지 않는 수다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들과 아동·청소년들 간에, 활동가들과 사무국 간에, 어디서든 가볍게 수시로 일어나는 수다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의견에 여러 사람의 생각을 더해가는 과정이 되었다. 연구책임자의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활동가, 봉사자, 아동·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서로 의견을 묻고, 농담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활동가, 봉사자 모두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고, 소통이 진솔하게 이루어지면서 오해가 쌓이지 않아 갈등이 그때그때 해소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일 중요한 게 문화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문화가 있고, 또 그렇게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런 선생님들이 터를 잘 닦아놓으신 것 같고, 일단 문화가 자리잡으면 새로 사람이 오더라도 거기 젖어들죠.” (가**, B단체 이사장)

“운영진(사무국 직원)끼리 소통, 운영진과 활동가 사이 소통, 운영진과 아이들 사이 소통, 활동가와 아이들 사이 소통, 소통 끝판왕이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이 있어서인지 갈등도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반대하는게 아니라, 서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더하고 더하는 분위기에요.” (나**, A식당 활동가)

3) 열려있는 공동체, 하지만 명확한 공유 가치와 규칙

A식당은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이다. 하지만 누구든 A식당에 오면 으레히 따라야 하고, 젖어들게 되는 고유의 문화, 자율, 존중, 배려가 있는데, 이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A식당 참여자, 이용자들의 실천적인 노력을 통하여 형성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식당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공간이 어떤 문화를 가진 곳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공간의 활동가, 봉사자들이 공유할 약속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G청소년지원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 ‘좋은 어른이 되자’라는 지향점을 토대로, ‘밝게 인사하기’, ‘안부 묻기’, ‘귀 기울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 파악하기’, ‘아동·청소년의 욕구 수용 방안 찾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 존중하기’등이 있다. 새로운 활동가, 봉사자들이 올 때는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A식당의 문화는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문화로부터 와요. 네트워크의 지향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자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좋은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자세를 공유하는 거죠. 새로운 활동가, 봉사자들이 올 때도 이 부분을 먼저 나뉘요.” (나**, A식당 활동가)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규칙도 존재하는데, 이는 누군가를 처벌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공간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구성원이 유동적인 열린 공동체의 특성 상 규칙은 많을수록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에 그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규칙은 명시적인 규칙과 암묵적인 규칙으로 구분되는데, 명시적인 규칙은 A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요일, 시간, 식사 이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건물 벽, 배식대 옆 등 곳곳에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그 내용은 ‘손 씻기’, ‘먹을 만큼만 집어가기’, ‘뛰지 않기’, ‘다 먹은 후 자기 자리 정리하기’, ‘접시를 물로 행군 후 물통에 그릇 담귀놓기’, ‘분리수거하기’, ‘선생님과 함께 청소하기’등이다. 이처럼 문서화된 명시적인 규칙은 ‘정

보'의 성격을 가진 것들로, 아동·청소년들이 비교적 빠르게 학습하고 따를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암묵적인 규칙은 아동·청소년들이 A식당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른,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와 습관에 관련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A식당에서는 폭력, 고자질, 왕따가 허용되지 않는다. 긴 시간 형성되어 온 습관과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입장에서든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문서화하거나 강제화하기보다는,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할 때마다 활동가, 봉사자들이 반복적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활동가, 봉사자들로서도 많은 기다림과 인내, 자기성찰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동·청소년들이 A식당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을 쌓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요. 운영 날짜가 약속되어 있고, 조리시간에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A식당)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너희들이 주인이니깐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열린 시간이 있고, 암묵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만만큼은 폭력은 안 된다, 왕따는 안 된다, 고자질은 안 된다.” (아**, A식당 운영 책임자)

“아이들이 저희를 계속 시험해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간을 보는거죠. 아이들은 계속 끊임 없이 새로 오고, 한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다르게, 매일매일이 딜레마예요. (중략) 어떠한 질책이나 군대식으로 별점 주고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죠. (아이들이 못 지키는건) 당연한 거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 어른들이 할 역할이에요. (중략) 아이들이 자기가 약속한 거를 못 지키는 상황이 됐을 때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이러이러 해서 이번에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모습들. 그전에는 없었던 모습들인데, 이제는 우리를 이해하려고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아**, A식당 운영 책임자)

A식당에서 이용자들 간에 공유되는 가치와 규칙의 존재는 우리가 같은 공간을 함께 이용하고 있고,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체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윤희와 백일순(2021)이 커먼즈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위한 교육과 생각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가치와 규칙의 존재만으로 그 가치와 규칙이 저절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대화와 설명, 이해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작동함을 알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강점과 한계

1)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용이

A식당은 8살부터 19살까지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식당 혹은 도시락 이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등록과정을 거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의사가 중요하다. 식당에 처음 방문한 아동·청소년이 있으면 활동가가 이름과 학년 정도를 물어본 후, 식당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쿠폰북을 만들지 여부를 물어본다. 쿠폰북은 아동·청소년의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으로 식당 출석도장, 미션수행 도장 등을 모아 간식을 사먹을 수 있다. 물론 쿠폰북을 만들지 않아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저희 공간은 활~~짝 열려있어요. 아이들이나 보호자에게 받을 증빙 서류도 없고 가난과 힘들
을 굳이 증명할 필요 없는 공간이에요.(중략) ‘애도 도시락 필요해요’라면서 친구나 동생 데리고
오기도 하고, 동생이 가는거보고 언니, 오빠가 오기도 하고” (나**, A식당 활동가)

“소득 기준 없이 도시락을 나눠준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보호자2, A식당 이용 아동 보호자)

정연정(2010)은 기존 교육복지사업이 선별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현장에서 학생
들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는데, A식당은 소득기준, 보호자의
맞벌이 여부 등으로 제한을 하지 않다보니 공적 돌봄시스템의 지원자격에서 비껴나 있거나
사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을 더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낙인감이 없다. 이에 아동·청소년들도 부담없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나 형제, 자매를 데려오다보니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여건

A식당은 민간 재원과 참여주체들의 자치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들
을 없애고, 꼭 필요한 행정절차만 남길 수 있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확보한 시간은 오로지
아동, 청소년과의 대화와 이들을 위한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활동가들이
아동, 청소년들의 돌봄에 집중할 수 있다보니,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 필요에 빠르고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의견, 의사를 존중하면서 음식의 메뉴부터 공간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내용까지 그때그때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적이나 평가의 압박이 없다보니 아동·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존중해줄 수 있게 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은 한번만 오고 안 올 수도 있고, 본인의 일정에 맞춰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고, 모든 활동은 자신의 의사에 기반하여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운동이나 시계보는 방법 익히기 등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들이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들을 미션화하여 친구들과 게임처럼 즐기면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저희는 아이들이 거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것,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모두 강제성이 없고 원하는 아이들만 밥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나**, A식당 활동가)

“아이가 한창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아무도 말리지 않고 내버려둔다. 그런데 30분쯤 지나니 아이가 스스로 휴대폰을 놓고, 놀이봉사자를 찾아가 미션을 수행하겠다고 한다. 오늘의 미션은 줄넘기 100개. 다른 친구까지 불러 밖으로 나가 줄넘기를 시작한다. 한참을 뛰어놀다 30분은 훌쩍 지나 들어와서 미션 완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다.” (연구책임자 관찰노트, 2023.1.10.)

“그냥 놀러. 재미있잖아요. 식당 안에서 (보드)게임 하고” (아동1, 학생 운영위원)

A식당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맛있는 밥이 있고, 같이 놀 친구가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있는 곳이다. 공간의 규칙만 지킨다면, 자신이 무엇을 해도 무어라 하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들은 이 곳을 재밌는 곳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재미를 느낀 아이들은 자꾸 이 곳을 찾게 되고, 활동가들과 가벼운 듯 한,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한걸 한걸 쌓아나가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의 돌봄 역량 강화

A식당은 아동·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라는 지역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하여, 지역의 힘으로 자원을 모아 만들어냈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에 기반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다. 특히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서도 담아내지 못했던 아동·청소년

년들을 A식당을 매개로 찾아내고, 아동·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도움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내는 과정 속에서 지역 내 돌봄네트워크 연계망은 더욱 두텁고, 탄탄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당 인근 초등학교에 복지실이 있는데 식당이 생기고 복지실 선생님들이 정말 반가워 하셨어요. 복지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식당을 안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오시기도 하셨어요. (중략) 코로나 때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 밥을 먹일 수가 없으니깐, (G청소년지원)네트워크 통해서 서로 연락해서 아이들을 챙기고 그랬죠.”
(나**, A식당 활동가)

또한 기존 공적, 사적 돌봄기관과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운영되는 대안적인 돌봄공간이 존재함으로써 재난재해 상황에서 돌봄 위기에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구성원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돌봄 공간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문을 걸어잠그지 않고, 자체적인 안전수칙 하에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돌봄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 19 당시 학교,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아야 했을 때, 보호자가 보살피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연결망을 토대로 A식당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식사를 챙길 수 있었다. A식당의 행정적 유연성은 상황 변화에의 빠른 대처를 도왔고, 이용자 수가 급증할 때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빠르게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화되는 지역의 돌봄 역량은 앞으로의 각종 재난재해 속에서도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 혹은 완충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4) 지역주민들의 연대 강화에 기여

A식당이 만들어진 시점은, 근처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지역아동센터, 교회 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동네 아동·청소년들이 갈 곳이 부족해진 상황이었고, 행해진 길을 보면서 지역주민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A식당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다시 길에서 뛰어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은 반가워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식당’과 ‘밥’이라는 직관적이고, 명확한 활동내용은 A식당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이해를 도왔다.

“이 동네에 애들이 갈만한 곳이 정말 없어요. 아이들이 갈만한 곳은 피씨방과 놀이터밖에 없어요. 청소년문화의집도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가까운 G중학교 아이들 말고는 이용하기 어려워해요. 그 외 청소년 공간이나 보드카페 같이 아이들이 놀 공간은 신도심쪽에 몰려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가기 어렵죠. (중략) 지역분들이 ‘저기 뭐하는데야?’, ‘아이들 밥 먹이는 곳이라’ 밥은 누구한테나 중요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우신거죠.” (나**, A식당 활동가)

“이 동네가 지역아동센터도 여러 곳이고, 교회도 있고, 아이들이 되게 복잡복잡되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별안간에 이게 개발이 되면서 썩 빠져나가면서 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이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놀거리가, 기뻐할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식당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고, 더 기운차게 소리가 나고 (생략) 옆에 파출소에서도 거기(식당)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는 줄 몰랐더라고 할 정도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있고” (아**, A식당 운영 책임자)

또한 식당 이용자가 선별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의 공간이 아니라, 내 아이, 내 친구의 아이, 이웃의 아이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공동의 책무감이 생겨나는 시작점이 되었다. 홍지은(2022; 84) 또한 “일정한 경계를 가지는 공동체가 ‘우리’라는 경계 내에 폐쇄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권리의 측면과 결합할 때 커먼즈 만들기의 동력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동네주민인 건물주는 ‘이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거니까 이렇게라도 함께하는다’는 마음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2015년부터 함께해왔고, A식당 설립을 위한 주방마련 공사도 흔쾌히 허락해주었다.

“제가 (건물주에게) 한번 여쭙봤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어떻게 계속 해주시냐, 아이들 시끄럽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이 동네 아이들 돌보는거니까 이렇게라도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나**, A식당 활동가)

그 결과,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다보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간 밖의 좁은 이면도로가 이들로 북적여 주차나 차량이동이 용이하지 않지만, 설립 이후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민원이 한 번 밖에 들어오지 않았을만큼 주민들의 이해도가 크다. 또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먹이는 공간이라는 인식은 인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입소문 추천, 지역 배달업체의 도시락 배송 봉사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지역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열린 공동체에 기반한 A식당은 지역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기여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관찰자, 지지자로 남아있는 보호자

하지만 연구 진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경우 돌봄공간의 형성과정에서는 주체가 아니었다더라도 운영과정에서는 자치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돌봄 사각지대 문제의 당사자 중 한 축인 보호자들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관찰자, 지지자로서만 머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A식당의 운영 시스템과 맞물려,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직종이 고강도 육체노동, 장시간 근무가 많아 구조적으로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의 부재는 정보 제한으로 이어져 아동·청소년들이 가진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외부활동을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하지만 보호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구든 올 수 있는 곳이니깐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곳에 계속 오는걸 보면서 이 곳을 믿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거죠. 그러다보니 아이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가정상황을 알 수 없어서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빠르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나**, A식당 활동가)

A식당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운영시스템이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 확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A식당의 사례는 타 도시 커먼즈 사례들(이희환, 2017; 이해리, 2019; 박윤희, 백일순, 2021; 이현우, 정석, 2022)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의 경우, 커먼즈가 형성되고 운영되는 원동력이 그 당사자들로부터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발성과 자조, 연대에 기반한 커먼즈의 핵심 가치(Euler, 2018)를 고려했을 때, A식당이 진정한 돌봄 커먼즈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체적인 돌봄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참여를 강화해나갈 과제가 남아있다.

V.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보다 지속가능하고 유연하게 아동·청소년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돌봄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하여 커먼즈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A의 맥락적 형성배경, 운영원리,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사유화의 압박과 구성원들의 이질성이 강한 도시에서 커먼즈의 형성,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Huron, 2015; Patrick

& Michael, 2015; 유기현, 2021; Feinberg et al., 2021)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도 사회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커먼즈적 관점에서 물건, 공간, 시간, 재능·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는 다양한 정책이 공공 주도로 추진되어오고 있지만(유기현, 2021) 공동 관리하는 주체에 시민의 참여는 보이지 않는 점, 제도의 하향식 시행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류석진, 조희정, 김용복,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복지 공동체가 자신들이 직면한 아동·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십시일반 모아 만들고 자치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는 A식당은 도시 커먼즈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A식당은 자조/자치성으로부터 나오는 유연하고 열린 운영구조 속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밥’을 매개로 낙인감이 없이 다양한 상황의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ühne(2015)는 시민들이 정부 혹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음식, 주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자조와 연대에 기반하여 충족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현우와 정석(2022)은 도시 지역의 소규모 공유화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공유가치를 발견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A식당 사례는 아동 보호자의 참여 부재와 같은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돌봄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A식당 사례는 지역 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냈다는 점, 핵심 역할을 하는 중추 공유인인 리더그룹이 존재한다는 점,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에 기반한다는 점, 이용자들 간에 공유되는 가치와 규칙을 토대로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외부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시 커먼즈를 다룬 다른 선행연구(박인권, 김진언, 신지연, 2019; 박윤희, 백일순, 2021; 박서현, 김자경, 2022; 이현우, 정석, 2022)와 일관성 상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커먼즈의 경우, 그 형성과 운영과정에서 보호자보다는 활동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그 공간을 지배하는 일상적인 소통의 문화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 기반이 탄탄하다면, 공적지원이 부재하더라도 오히려 공적지원의 부재가 자치적인 활동과 돌봄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커먼즈가 활성화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현(2021) 또한 커먼즈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대응 정책사업을 분석한 연구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출자 등의 형태에서 도시커먼즈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Huron(2015)은 도시 커먼즈를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지역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공과 실패의 선경험을 축적해온 경우, 보다 원활하게 커먼즈를 운영해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 기존 공적 돌봄체계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및 시민들 간의 연대 부재, 돌봄서비스의 소비재적 성격으로의 전락, 행정편의주의, 잦은 인력 교체 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이자형, 2011; 윤향미 외, 2013; 김민정, 2017; 신혁금, 양윤이, 2021; 최현임, 손가현, 2021; 김순양, 2022; 김청림 외, 2022) A식당과 같은 지역사회 내에 커먼즈적 원리에 기반한 돌봄공간의 존재는 공적 돌봄시스템을 포함한 돌봄 안전망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상호보완하고, 코로나 19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견딜 수 있는 지속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커먼즈적 돌봄공간의 형성과 운영을 위한 2가지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공공은 돌봄 커먼즈의 형성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돌봄커먼즈가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의 형성 및 운영원리는 상호부조, 자조와 자치에 기반하는데,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 공동 관리하는 주체에 시민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제도가 하향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토양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질적인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지역의 특성 상 상호부조와 자치의 문화가 배양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공적지원이 어느 정도 마중물이 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모이고, 함께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공동체적 경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식당 또한 G청소년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문제를 함께 해결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에 보다 원활한 설립과 운영이 가능했으며, G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뿌리에는 비록 네트워크가 깨졌을지라도 관 주도의 네트워크 경험이 자리잡고 있었다. 만약 공적기관이 직접적으로 돌봄 커먼즈의 형성을 주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형성과 운영과정에 있어서 문제 당사자들의 참여와 더불어 적극적인 권한, 역할 나눔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돌봄 커먼즈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을 함께 길러나가는 파트너로 바라보고, 외형적 성과 위주의 평가 및 규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천적 측면으로 아동·청소년 돌봄커먼즈 현장에서는 재정적 부분과 소통의 문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Kühne(2015: 93)가 커먼즈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살아있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재정적인 안정성과 이용자들의 활발한 이용과 적극적인 참여일 것이다. A식당 또한 이 부분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이는 이용자 수의 증가 등 공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졌다.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구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서로의 생각에 생각을 더해가는 열린 소통문화와 봉사자,

활동가,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운영주체로의 참여는 이들이 A식당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어주었고, 그 결과 A식당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주었다. 다만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간의 문화와 규칙이 자리잡고 상호학습하는데는 많은 노력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때 리더그룹에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일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돌봄의 수많은 문제는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돌봄의 영역이 공적기관 혹은 사적기관으로 이양됨에 따라, 돌봄이 누군가가 공급해주는 서비스의 하나로 전락하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이 끊긴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과거 우리 집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이웃집 아이들도 데려다 밥을 먹이던 친절한 이웃이 사라진 지금, 커먼즈적 돌봄공간을 모색한다는 것은 이웃 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돌봄의 관계성을 회복해나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사례는 아동·청소년 돌봄에 초점을 맞춘 커먼즈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 커먼즈라는 개념의 실재를 보여줌으로써 도시 커먼즈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돌봄 커먼즈에 대한 담론이 여성주의, 반 신자유주의 등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전개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지역 공동체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커먼즈 사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다음 2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사례는 설립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 현재 진행형이며, 누적적인 성과, 실패와 지역사회에의 중장기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본 사례에서 커먼즈의 기본적인 요소와 운영원리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돌봄 사각지대 문제의 당사자 중 한 축인 보호자들이 공간이 만들어진 과정, 운영되고 있는 과정 모두에서 주체가 아닌 이용 아동의 보호자, 관찰자, 지지자로서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진정한 공유화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적·사적 돌봄체계와는 구분되는 대안적 사례를 탐색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후 아동·청소년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시도되는 다양한 돌봄 커먼즈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례 간 비교 분석, 중장기 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범철 (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17-49.
- 김경애, 유예림, 이성희, 한효정, 김민정, 김민희, 임은미 (2020). **코로나19 확산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정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인식 분석. **방과후학교연구**, 4(2), 43-66.
- 김세영 (2012). 초등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질적 사례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9(2), 31-57.
- 김순양 (2022).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6(4), 245-273. doi:10.24210/kapm.2022.36.4.012
- 김영란, 조선주, 선보영, 배호중, 김진석, 정영모 (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자경 (2017). 커먼즈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제주 금악마을의 양돈 악취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87-117. doi:10.15299/tjl.2017.04.17.87
- 김청림, 노지혜, 문성호 (2022). 가치비평적 접근을 적용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72, 75-103. doi:10.17854/ffyc.2022.10.72.75
- 남명자 (2006). 교사 전문성 맥락에서 본 유아교사의 '돌봄' 실천의 의미-장애유아통합어린이집 사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0(4), 201-232.
- 류석진, 조희정, 김용복 (2020). 지역재생관점의 로컬 커먼즈 구현 가능성 연구: 로컬 자원과 자산화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3(2), 43-75. doi.org/10.52594/jcp.2020.08.13.2.43
- 박서현, 김자경 (2022). 도시에서 커먼즈는 어떻게 가능한가?: 제주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40(2), 1-24. doi: 10.35412/kjcs.2022.40.2.001
- 박신희, 김민성 (2021).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일상에서 경험한 '배움'과 '돌봄'의 양상. **아동교육**, 30(1), 5-33. doi:10.17643/kjce.2021.30.1.01
- 박윤희, 백일순 (2021).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공간과사회**, 31(1), 208-245. doi:10.19097/kaser.2021.31.1.208
- 박인권, 김진언, 신지연 (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9, 62-113. doi:10.19097/kaser.2019.29.3.62
- 박형준, 이경숙, 최정은, 김이경 (2020). **공생을 위한 커먼즈 경제와 한국의 커먼너들**. 서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 지식공유지대.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1(1), 111-143.

- 서덕희 (2020). 질적연구의 ‘원형’으로서 사례연구의 방법론적 성격: 사례와 연구자의 대칭적-되기. **교육인류학연구**, 23(4), 1-29. doi:10.17318/jae.2020.23.4.001
- 신혁금, 양윤이 (2021). 초등돌봄전담사의 무상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개선사항. **방과후학교연구**, 8(1), 1-30.
- 심정보 (1996). ‘보살핌’의 윤리와 도덕교육론, **초등교육연구**, 9, 1-26.
- 유기현 (2021).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 실현의 한계 및 가능성. **공공사회연구**, 11(1), 216-247. doi:10.21286/jps.2021.02.11.1.216
- 윤향미, 조문석, 오재록 (2013).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181-203. doi:10.18398/kjlgas.2013.27.1.181
- 이보람, 김현정, 김태중, 김부열, 박혜준 (20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인식하는 이용아동의 발달특성과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 62(62), 165-205. doi:10.24300/jkscw.2018.06.62.165
- 이선미 (2016). 돌봄의 특성과 돌봄 공공성의 요건. **사회와이론**, 29, 223-260. doi:10.17209/st.2016.11.29.223
- 이승원 (2019). 도시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 사회**, 29(2), 134-174. doi:10.19097/kaser.2019.29.2.134
- 이자형 (201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 학교의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4(2), 129-161. doi:10.17318/jae.2011.14.2.005
- 이해리 (2019). 먹거리 커먼즈와 청주시 지역먹거리정책의 방향. **ECO**, 23(1), 107-156. doi:10.22734/ECO.23.1.201906.004
- 이현우, 정석 (2022).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에 관한 연구: 공유인 관점으로 바라본 동의동 쪽방촌 마을식당 현장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32(4), 123-172.
- 이희환 (2017). 새로운 도시운동을 준비하는 인천 동구 배다리마을. **황해문화**, 95, 240-248.
- 정남영 (2015).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 인문학**, 14(10), 89-122. doi:10.15299/tjl.2015.10.14.89
- 정영신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 연구**, 23(4), 237-260. doi:10.21740/jas.2020.11.23.4.237
- 정익중 (2020). **코로나19 전후 일상 변화와 아동행복**.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행복 포럼자료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최현임, 손가현 (2021). 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 발전방안 탐색-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61-770. doi:10.19097/kaser.2022.32.4.123
- 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ECO**, 22(1), 243-276. doi:10.22734/ECO.22.1.201806.008
- 홍지은 (2022). 커먼즈를 둘러싼 정치와 변동하는 도시 커먼즈: 청주시 산남 두꺼비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ECO**, 26(1), 53-92. doi:10.22734/ECO.26.1.202206.002

- Bauwens, M. & Kostakis, V. (2014). From the Communism of Capital to Capital for the Commons: Towards an Open Co-operativism. *triple C*, 12(1), 356-361. doi:10.31269/triplec.v12i1.561
- Bauwens, M. & Kostakis, V. (2015). Towards a New Reconfiguration Among the State,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Journal of peer production*, 7, 1-6.
- Bollier, D. & Weston, B. (2013). *Green Governance: Ecological Survival, Human Rights and the Law of the Common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New Society Publishers.
- Bollier, D. (2016). *Commoning as a Transformative Social Paradigm*. Retrieved November 20, 2022, from <http://www.truevaluemetrics.org/DBpdfs/Initiatives/Next-System-Project/David-Bollier-Commoning-as-a-Transformative-Social-Paradigm.pdf>.
- Caffentzis, G. (2010). The Future of 'The Commons': Neoliberalism's 'Plan B' or the Original Disaccumulation of Capital?. *New Formations*, 69, 23-41. doi:10.3898/newf.69.01.2010
- Caffentzis, G. & Federici, S. (2014).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1), 92-105.
- Capra, F. & Mattei, U. (2019). **최후의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박태현, 김영준 역.).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원저 2015 출판)
- De Angelis, M. (2019). **역사의 시작: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권범철 역.). 서울: 갈무리. (원저 2006 출판)
- Euler, J. (2018). Conceptualizing the Commons: Moving beyond the Goods-based Definition by Introducing the Social Practices of Commoning as Vital Determinant. *Ecological Economics*, 143. doi:10.1016/j.ecolecon.2017.06.020
- Federici, S. (2013a). **혁명의 영점**. (황성원 역.). 서울: 갈무리. (원저 2012 출판)
- Federici, S. (2013b). Commons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feminists movements in Europe. *Femina Politica*, 22(1), 93~100.
- Feinberg, A., Ghorbani, A. & Herder, P. (2021). Diversity and Challenges of the Urban Commons: A Comprehensiv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15(1), 1-20. doi:10.5334/ijc.1033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 Hess, C. (2000). Is there Anything New Under the Sun? A Discussion and Survey of Studies on New Commons and the Internet. Paper presented at the 8th

-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ommon Property.
- Huron, A. (2015). Working with Strangers in Saturated Space: Reclaiming and Maintaining the Urban Commons. *Antipode*, 47(4), 963-979. doi:10.1111/anti.12141
- Kühne, J. (2015). Notable Urban Commons Around the World, in Bollier, D & Silke Helfrich Editors, 2015, *Patterns of Commoning*. The commons strategies group.
- Merriam, S.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onteagudo, G. (2019). Women Reclaim the Commons: A Conversation with Silvia Federici.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51(3), 256-261. doi:10.1080/10714839.2019.1650505
- Noddings, N. (2002). **배려교육론-인간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 (추병완, 박병춘, 황인표 역.). 서울: 다른우리. (원저 1992 출판)
- Ostrom, E.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 안도경 역.). 서울: 랜덤하우스. (원저 1990 출판)
- Papadimitropoulos, V. (2017). The Politics of the Commons: Reform or Revolt?. *TripleC*, 15(2), 563-581. doi:10.31269/triplec.v15i2.852
- Patrick, B. & Michael, B. (2015). Escape into the City: Everyday Practices of Commoning and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 in Dublin. *Antipode*, 47(1), 36-54. doi:10.1111/anti.12105
- Smith, L. (1978). An evolving logic of participant observation, educational ethnography and other case studies, in L. Shulman (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6, 316-377, Itasca, IL: Peacock. doi:10.2307/1167249
- Stake, R. (2000). **질적 사례 연구**.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95 출판)
- Tronto, Joan C. (2014).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 나상원 역.). 서울: 아포리아. (원저 2013 출판)
- Yin, R.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Zechner, M. (2022). Childcare commons: of feminist subversions of community and commune in Barcelona, *Ephemera*, 22(2), 19-49.

부록 1

인터뷰 녹취록 분석-상위 및 하위범주

구분	주제(상위범주)	하위범주
A식당의 매력적 형성배경	① 코로나 19 시기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시기 방임아동, 밥을 굶는 아동·청소년 증가 ◦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문제 해결 여론형성 ◦ 청소년지원네트워크 내 지속적인 문제 제기 ◦ 아동·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들이 필요 ◦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
	② 접근성이 좋은 물리적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접근성이 좋은 공간 ◦ 공간에 대한 지역 내 인지도 ◦ 인근에 타 돌봄공간이 부족한 상황
	③ 경험과 신뢰가 쌓인 리더그룹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리더그룹 ◦ 과거 실패경험의 축적 ◦ 행동력 있는 리더들 ◦ 철저한 준비과정 ◦ 자원을 모아내는 역량
A식당의 커먼즈적 운영원리	① 민간재원을 토대로 한 자조적·자치적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지원금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 ◦ 안정적인 기본 운영비 확보의 필요성 ◦ 지역 구성원들의 후원금(물품), 회비 기반 운영 ◦ 활동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의 중요성
	② 일상적·민주적인 소통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책임 나누기 ◦ 상호신뢰의 문화 ◦ 상대방의 생각을 비난하지 않는 소통 문화 ◦ 서로의 생각에 생각을 더해가는 소통 문화 ◦ 다자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참여 ◦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수다 ◦ 자기주도적인 참여
	③ 열려있는 공동체, 하지만 명확한 공유가치와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당 ◦ 공동의 가치와 철학 ◦ 아동·청소년을 존중하는 문화 ◦ 간단하고, 명확해야 하는 규칙 ◦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의 구분 ◦ 규칙을 어겼을 때는 질책이 아닌 설명해주기 ◦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향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A식당의 강점과 한계	①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밖에 있어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 ◦ 이용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아동·청소년 ◦ 또래를 쫓아 따라다니는 아동·청소년의 특성
	②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소한 행정절차에 따라 돌봄에 집중이 가능 ◦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 ◦ 아동·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들 ◦ 참여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공간 ◦ 자꾸 가고 싶은 재밌는 공간
	③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의 돌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의 힘으로 설립된 식당 ◦ 코로나 19시기에도 운영 및 아동·청소년 식사 지원 ◦ 학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와의 협력 강화 매개
	④ 지역주민들의 연대 강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한 곳 ◦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돕기
	⑤ 관찰자, 지지자로만 남아있는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구조와 여건 ◦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등록과정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한

부록 2

A식당 운영 현황(2023년 2월 기준)

구분	내용
운영시간	주2회(화/금요일) 운영 - 방학: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 학기 중: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제공내용	식사, 놀이, 도시락(반찬)배달
주 이용자 연령대	주로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 일부)
이용자 거주지역	* 식당 이용자: g1동, g2동 *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 이용자: G시 전지역 (G청소년지원네트워크 참여 기관에서 추천을 받음)
운영일 평균 이용자 수	* 식당 - 식당에 와서 도시락을 가져가는 학생: 1일 15명 -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학생: 1일 평균 65명 * 도시락/반찬을 배달받는 학생 - 도시락 배달: 방학 중 40명, 학기 중 60명 - 반찬배달: 방학 중 30명, 학기 중 15명
봉사자 현황	* 활동가: 2명 * 음식 조리 및 도시락 포장 봉사자: 4~5명씩 2팀 및 정기 개인봉사자 3명 * 놀이 봉사자: 1~2명 * 도시락/반찬 배달 봉사자: 10명

출처: B단체 홈페이지, A식당 운영일지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process of forming and operating local community caring spa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ocial blind spots: With a focus on ‘A’ restaura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im, Kyungmin*·Hong, Seulhee**

In the situation of social distancing due to COVID-19, public education and welfare facilities have repeatedly opened and closed according to government guidelines, leading to the shift the responsibility of care onto the private sphere such as families. In this process,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excluded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care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 universality of public caretaking syste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considering the individu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care and the various limitations of the public caretaking systems, it is necessary to explore alternative system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A restaurant created by the local education and welfare community to address blind spots in child car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formation of A restaurant was driven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ocial blind spots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securing of physically accessible space, and the presence of a leader group that built trust and experience. Furthermore, the commons-based operating principles of A restaurant were revealed through community-based resources, shared norms among users, and a democratic communication structure. The caretaking system based on commons was found to be advantageous in identifying and supporting blind spots, meeting the needs and respecting the autonom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trengthening the care capacity of the local education welfare community and solidarity among residen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explores the feasibility of a commons based caretaking system in urban areas and proposes its necessity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Key Words: children and adolescents, caring, blind spots, commons, local community

*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Social Welfare Policy, Yonsei University(presea720@hanmail.net)

** Second author, Director, Clothmonkey(tmfl125@naver.com)